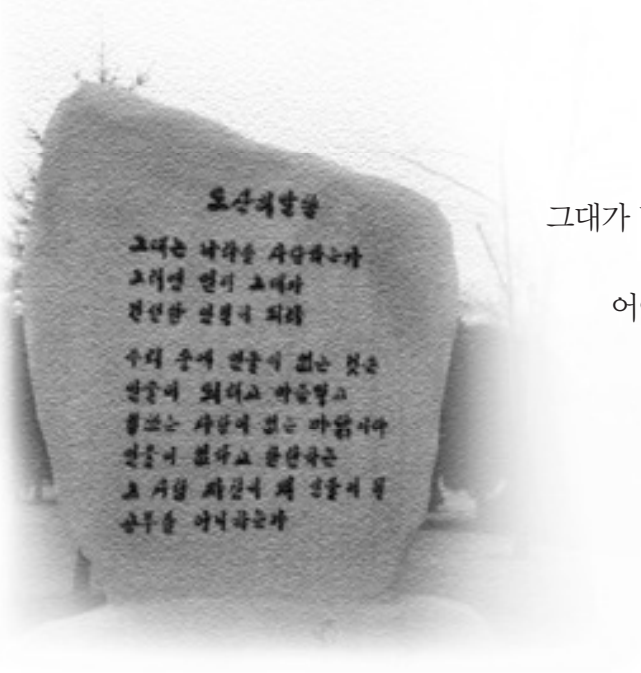


일 없는 얼은 손발 없는 얼

| 김흥호 |

감정적 일시적 협동이 아니라 언제나 일을 중심으로 협동을 내세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뜻과 에너지 가득한 삶을 김흥호 선생이 말합니다(편집자주).



그대가 백성의 질고를

어여삐 여기거든

그대가 먼저

의사가 되라



| 도산 안창호 | 1878~1938

도산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다. 우리의 애국가가 도산이 지은 노래다. 도산은 애국가 외에도 「나의 한반도」라는 노래를 지었다.

“동해에 돌출한 나의 한반도야, 너는 나의 조상 나라이니 나의 사랑함이 오직 너뿐일세. 한반도야, 산천이 수려한 나의 한반도야, 내 선조와 모든 민족들이 너를 위탁하여 성장하였구나. 한반도야, 역사가 오래된 나의 한반도야, 선조들의 유적을 볼 때에 너를 생각함이 더욱 깊어진다. 한반도야, 아름답고 귀한 나의 한반도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배니 나의 피를 뿌려 너를 빛내고져, 한반도야.”

그밖에도 도산이 33세에 실국을 앞두고 해외 망명을 떠나면서 불렀다는 「거국가(去國歌)」는 작자의 뼈를 깎아 붓을 삼고 가슴을 찢러 피로 먹을 삼아서 조국의 강산과 동포에게 보내는 하소연이요, 부탁이었다. 그러나 도산의 애국은 감정적 애국이 아니었다. 도산은 가끔 “그대가 백성의 질고를 어여뻐 여기거든 그대가 먼저 의사가 되라”고 말하였다. 의사가 되어 환자를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도산의 애국이었다. 그는 애국가의 후렴에 “대한사람 대한으로”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대한사람이라는 뜻은 의사가 되어 대한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다. 그가 흥사단 운동을 시작한 것도 나라를 고칠 수 있는 의사를 길러 내자는 의도에서였다.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집에는 집을 고치고, 집을 다시 짓고, 집을 새롭게 꾸미는 주인이 필요하다. 도산은 46세에 북경에서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이광수에게 전해주었다. 그 가운데 주인의 뜻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주인이란, 우리 민족 사회에 대하여 영원한 책임감을 진정으로 안은 사람입니다. 그 집안 일이 잘되어 나가거나 못되어 나가거나 그 집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그 집 식구가 못났거나 잘났거나 그 식구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본의 능력이 짧거나 길거나 자기의 있는 능력대로 그 집의 형편을 의지하여 그 집이 유지하고 발전할 만한 계획과 방침을 세우고야 맙니다. 이와 같이 자기 민족 사회가 어떠한 위난과 비운에 처하였든지, 자기의 동족이 어떻게 못나고 잘못하든지,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하던 일이 몇 번 실패하든지, 그 민족 사회의 일을 분초 간이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또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족하든지 부족하든지 다만 자기의 지성으로 자기 민족 사회의 처지와 경우를 의지하여 그 민족을 건져낼 구체적 방법과 계획을 세우고, 그 방침과 계획대로 자기의 몸이 죽는 날까지 노력하는 자가 그 민족 사회의 책임을 중히 알고 일하는 주인이외다.”

주인이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집을 이룩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 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나라의 역사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킨 것은 고구려가 있을 뿐이다. 진정으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 산 시대가 고구려시대다. 고구려는 지금 만주라는 지역을 그의 안방으로 삼았다. 만주라면 지금은 남의 땅처럼 생각하지만 만주야말로 우리 땅이요, 우리의 안방이다. 주인은 안방에 살 때가 주인이요, 사랑방이나 대문간으로 쫓겨나기 시작하면 주인은 이미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안방을 차지하였을 때만이 주인이다. 주인이 안방을 지키고 있을 때는 옆집 중국도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했다. 수나라 군대 30만이 고기밥이 되었고 당 태종도 안시에서 대패하고 도망쳐버렸다. 도산은 그 당시 우리 민족의 기상을 “쾌하다. 장검을 비껴들었네.”라고 노래를 불렀다.

도산이 47세 때는 친히 동명왕의 옛터를 찾아간다. 우리 안방이요, 고구려의 본토요, 압록강 이남은 우리의 사랑방에 불과하다. 우리가 안방에 살 때는 주인 된 마음으로 당나라가 와도 능히 쳐부술 수 있었지만 안방에서 쫓겨난 후부터는 갑자기 구질구질해져서 주인의식은 잃어버리고 정말 노예가 되고 만 것이다. 도산은 동명왕의 옛터가 한 없이 그리웠다. 그는 만주를 독립의 근거지로 삼기 위하여 대독립당을 건설할 계획으로 만주로 간 것이다. 그리하여 그곳을 독립의 근거지로 삼는 동시에 해외 활동의 기지, 그리고 해외 교포들의 정신적인 메카, 그리고 국내 동포의 선망의 기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것이 도산의 이상촌 운동이다. 이상촌 운동이기보다 안방 찾기 운동이었다. 안방을 못 찾고는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산은 안방에서 의젓하게 주인 노릇을 하던 옛날 대왕조가 그리워 대왕조의 높은 덕이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도산은 언제나 고구려 선민이 가졌던 대기상을 그리워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의 옛 성토 평양시를 사랑하였다.

도산의 마음에는 평양은 단군 왕검이 계시던 곳이요, 고구려 전성시대의 서울이었다. 우리 민족 중에 가장 웅장한 역사를 짓고 문화를 이룬 고구려의 선인들도 이 강산에서 수양하고 이 강산에서 이상을 배웠다. 고구려의 건전한 국민정신이 여기서 발하고 여기서 꽃피었다. 유교와 불교가 여기로 들어왔고, 일본의 스승이 된 혜자와 담징이 대동강물을 마시고 성장하였다. 수와 당의 대군을 격파한 영웅들이 호

기를 기른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국가, 민족정신, 민족문화의 발상지, 즉 우리 민족의 고향이라 하여 도산은 이것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 것이었다. 도산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모아서 단군과 고구려의 민족정신을 함양하고 반만 년 전 민족창업의 대기개를 조상들의 살로 된 이 강산에서 감득, 체득케 하자는 것이다. 천2백 년 전 고구려 왕성, 평양, 호수 23만, 인구 백만 이상, 도로는 포장되었고 대동강에 다리가 놓여 있었고 당나라, 서역의 상선이 정박되어 있었다. 불란사, 흥복사는 경내까지 운하가 개척되어 있었고, 만수대, 구제궁은 둥근 주의 직경이 3척이나 되었다. 석제건축은 희랍을 방불케 하였고 칼과 화살의 공예는 중국이 부러워하는바 되었다. 회화는 아직도 고분에 색채가 선명하게 남아 있지 아니한가. 국력으로 보건대 옛날 한족을 구축하여 소위 한사군을 회복한 것은 제외하고라도 고구려는 당의 유일한 숙적이자 경적이어서 당 태종이 안시에서 대패하지 않았는가. 도산은 우리민족이 적어도 2백 년 전 고구려 선민의 정신과 기백에 복귀하고자 하였다. 도산은 평양의 산수를 좋아하였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우뚝 솟은 모란봉을 노래 불렀다.

“금수강산 뭉킨 연기 반공 중에 우뚝 솟아 모란봉이 되었구나. 활발한 기상을 떨치는 듯, 모란봉아, 모란봉아, 반공 중에 우뚝 솟아 독립한 내 모란봉아. 네가 내 사랑이라, 모란봉아. 평양성은 제일 강산 명승지라. 일등 낙원이 아닌가. 쾌활한 흥치가 생기는 듯 모란봉아, 언덕 밑에 흘러가는 대동강물 거울 같이 맑았어라. 더러운 맘이 씻기는 듯 모란봉아, 좌우편에 보통벌과 대동뜰이 광활하게 터졌구나. 모색한 흥금이 열리는 듯 모란봉아, 보통강수 대동강과 합류하여 황해수로 흘러간다. 무궁한 희망이 생기는 듯 화려하다. 금수강산 황금인 듯 백옥인 듯 내 죽으면 바로 죽지 그대를 놓고 난 못 살리라.”

얼이란 얼음처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 남을 위에서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들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도산은 대동강 하류의 두룡섬에서 태어났고 58세에 대전 감옥에서 4년 징역을 끝내고 몸담을 곳을 찾은 곳이 평양서 50리쯤 되는 강서군 대보면 대보산 송태산장이었다. 여기에 그는 모범 농가를 건설하고 체포될 때까지 거기서 유하였다. 송태는 옛날 고구려의 오의선인이 살던 곳인데, 오의선인은 신라의 김유신이나 고구려의 을지문덕, 연개소문을 가르친 스님이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농민이면서 동시에 천문, 지리, 정치, 문학, 의술, 용병, 무예 등을 깊이 연구한 학자였으며 동시에 충국 효친하고 경천 승조하는 이 나라의 얼이기도 하였다. 도산은 이런 어른들을 좋아하였다. 이 나라의 어른이요, 주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다. 도산도 이 나라의 주인이 될 결심을 한다. 그것은 그의 나이 22세 때였다. 처음으로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사람 두 명이 상투를 마주잡고 싸우는 광경을 미국사람들이 개싸움이나 보는 것처럼 재미있게 구경하는 것을 보고, 얼빠진 한국 사람의 얼을 집어넣지 않는 이상 강아지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 후 사람 되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청운의 웅지를 버리고 진학의 길을 단념하고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첫발을 내딛는다.

그는 재류동포의 호별 방문을 시작하여 첫째 그들의 거처가 더럽다는 것, 둘째 그들의 집에 화가 없다는 것, 셋째 그들의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 넷째 그들이 떠들어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도산은 우선 청소부가 되었다. 그것이 주인 되는 길의 첫걸음이었다. 동포의 집을

청소하고 꽃을 심어주고 커튼을 쳐주고 냄새를 없애주고 계를 만들어서 그들의 경제를 조직화하고 공립협회를 맡기하여 협동하게 하였다. 이것이 사람 되는 운동의 첫걸음이었다. 흩어졌던 그들은 다시 뭉쳤다. 얼이란 얼음처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 남을 위에서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들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도산은 언제나 자기가 뒷자리에 앉는다던가 감투 쓰기를 싫어했다. 그는 대성학교를 세우고도 윤치호를 교장으로 내세우고, 출판사를 세우고도 안태국을 그 머리로 삼고, 자기 회사를 세우고도 동지를 내세우고,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고도 이승만을 추대하는 등 자기는 언제나 말단에서 일을 보았다. 그는 친구로서 어른이 된 사람이지만, 감투로서 어른이 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어떤 곳에서든지 가장 우수한 인물을 골라서 지도자로 삼고 그로 하여금 단합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 상해에 임시정부가 조직되어 아침마다 전원이 국기를 게양하고 애국가를 불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은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도산은 있는 힘을 다하여 애국가를 불렀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도산은 자기가 지은 노래를 열심히 불렀다. 그리고는 그 노래를 자기가 지었다고 하지 않았다. 그 노래는 이미 민족의 것이니 도산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산은 언제나 감정적 협동을 파기하였다. 그것은 영원한 협동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산은 언제나 사업을 중심으로 한 협동을 내세웠다. 일 없는 얼은 손발 없는 얼로, 그것은 아무 쓸

데가 없다. 언제나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방략을 가진 협동을 그는 추구하였다. 독립운동에 있어서도 그는 언제나 준비 없고 계획 없는 즉흥적 협동을 거부하였다. 임시정부에 관해서도 독립운동이 아무리 오래 끌더라도 독립이 실현되는 날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를 단결시켜 정신적 지지와 재정적 지지를 받게 하였다. 북간도, 서간도, 러시아, 미국, 하와이 다섯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거기 거주하는 동포를 국민 전체로 보아서, 그들의 납세로 재정적 기를 삼고 동시에 그들에게 교육과 산업의 발전을 주어 문화력과 경제력을 증진함을 행정의 목표로 삼자는 것이다. 실로 그 당시 재외동포는 3백만에 달하여 그들의 지원으로 임시정부는 얼마든지 유지될 수가 있었다. 그는 임시정부의 유지 방법을 상세히 분석하고 그 밖에 국내 연락망, 국제 선전 방법, 건국 방략 등 어느 때 해도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언제나 무실역행을 강조하였다. 불가능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었다. 도산이 공부 하겠다던 뜻을 버리고 동포 훈련에 들어갈 때도 도산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언제나 자기의 힘으로’, 이것이 도산의 기본 생각이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가 17세에 쾌재정에서 만민공동회 발기회를 열고 대응변을 토할 때도 그는 수구파도 싫고 개화파도 싫었다. 수구파는 중국을 업고 개화파는 일본을 업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당나라와 싸운 것은 제 힘으로 싸워서 이겼지 결코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힘으로 싸우지 않는 것은 모두 노예요, 자유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힘써 덕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애국심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힘이다. 힘 있는 사람만이 설 수가 있다. 허영에 들뜬 사람은 설 수가

없다. 언제나 현실에 발을 디뎌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야 한다.

얼은 현실을 찾는 것이다. 어른이 아이를 찾듯 얼은 언제나 현실을 찾는다. 얼은 힘이다. 어른이기 때문이다. 얼은 일한다. 어른이 일하지 않으면 누가 일할까. 얼은 주인이다. 어른이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일까. 얼은 참이다. 얼에는 빈틈이 없다. 얼은 힘이기 때문이다. 어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짓을 싫어했다.

“아, 아,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군부의 원수는 불공대천이라 하였으니 내 평생에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 하리라.”

그는 언제나 정직을 그의 표준으로 삼고 근면을 그의 좌표로 삼았다. 그는 언제나 생각하고 언제나 공부하였다. 그는 실제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도 아니고 이완용도 아니고 그것은 안창호 자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나라를 판 자기는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는 얼을 가지게 되었다. 감방에서의 모든 옥고도 그는 달게 받았다. 나라를 망하게 한 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고통과 동포의 채찍을 맞아가면서 다시 나라를 일으킬 운동에 착수한 것이 그의 한평생이었다. 그는 체면을 차리지 않았다. 미국에 가서는 언제나 제일 천한 육체노동을 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일에 고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일은 언제나 참이다. 일을 멀리하는 것이 거짓이다. 일을 통해서 사람은 끊임없는 자기 수련을 계속해간다. 도산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힘쓰는 데서 나온다. 이것이 수양, 즉 ‘독립’이라는 것이다. 도산은 독립 국가의 건설을 건축에 비교했다. 좋은 건축은 좋은 기로 이루어진다. 도산의 기초는 수양을 말하고 건축은 독립을 의미하였다. 도산은 건축에 앞서 재목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아무

“내 소리가 들리는 범위를 위하여 말하고
내 손이 닿는 범위를 위하여 사랑하고 돕고 일하라.
이것이 인생의 바른길이다.”

리 초가삼간이라도 재목이 없으면 집을 못 짓는다. 그런데 재목은 하루 이틀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재목을 길러야 한다. 여기서 도산은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가 32세에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청년 학우회를 조직하고 태극서관을 일으킨 것은 모두 교육의 중요함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도산은 대성학교를 각 도에 세울 작정으로 우선 평양에 본보기로 내세웠다. 그는 청년들에게 조국의 영광을 호소하였다.

“청천의 백일 밝음과 같이 조국의 영광을 빛내어라. 조국의 영광이 빛나게 됨은 청년의 고명함이 빛남이다. 송백의 푸른빛은 창창하고 소년의 기상은 늙름도 하다. 우리의 기상이 송죽 같으면 조국의 독립기도 튼튼하리. 태산을 빼는 힘이 있을지라도 청년의 굳은 뜻은 못 꺾네. 우리 세운 뜻이 참 견고하면 조국의 국권이 태산 같으리.”

도산은 일하는 개인을 만들고 싶었다. 개인은 제 민족을 위하여 일하므로 인류와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 ‘하는 것’이 그의 인생관이었다. 한인으로서 할 일은 한인을 위하는 일이었다. 한인의 말을 들을 자도 한인이요, 한인의 도움을 구할 자도 한인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인의 말이나 한인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 민족을 버려두고 세계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제 국토를 잃어버린 유랑민족이나 할 일이다.

“내 소리가 들리는 범위를 위하여 말하고 내 손이 닿는 범위를 위하여 사랑하고 돕고 일하라. 이것이 인생의 바른길이다.”

이렇게 도산은 말하였다. 도산은 무엇이든지 흐릿하게 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성을 다하여 탐탁하고 아담하여 누가 보아도 부러워하도록 무엇이든 만들고 싶었다. 그는 집을 짓든지 학교를 세우든지 나라를 세우든지 남의 본보기를 만들고 싶었다. 도산은 평양대성학교를 완성하여 그 성과와 실적을 보임으로써 전국에 교육의 모범이 되어 학교 설립의 자극이 되게 하고, 마산에도 자기 회사를 성공케 하여 전국에 산업 운동을 일으키는 본보기로 삼고, 태극서관을 세워 출판의 본보기로 삼고자 하였다. 책은 학교요, 책은 교사다. 다 무서운 학교요, 더 무서운 교사다. 도산은 본보기라는 것을 심히 중요시하였다. 이론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실천되어서 한 본보기를 이루기 전에는 널리 퍼질 방책이 생기지 못한다고 도산은 보았다. 그러나 한번 본보기가 생기면 그것을 모방하기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도산은 인격자를 하나의 본보기로 생각하였다. 하나의 인격자가 생기면 만의 인격자가 생긴다. 나 하나를 인격자로 만드는 것이 이 나라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어떻게 나라를 구원할 수 있나. 세상에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나를 먼저 구원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 말을 듣지 않는 남을 구원할 수 있으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나를 먼저 새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잠자코 있어도 나를 보고 남이 나를 본받으리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인물이 부족함을 한탄하는 소리를 한다. 다들 ‘인물이 없어서’ 하고 한탄한다. 왜 우리 중에 인물이 없나. 도산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한다.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 하는가. 집을 지으려 해도 재목이 없다. 재목은 외국

에서 사들일 수가 있다. 나라를 세우려는데 사람이 없다. 사람은 외국에서 사들일 도리가 없으니 세월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국내에서 양성할 도리밖에 없다. 정말 인물이 되고 안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렸다. 내가 어른이 되는 것이다. 내가 얼이 되는 것뿐이다.”

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이 뭉치게 마련이다. 도산의 밑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그것이 흥사단이라는 것이다. 흥은 얼이요, 사는 사람이요, 단은 모여든다는 것이다. 도산이 36세 때, 도산의 얼은 빛나기 시작했다. 얼의 빛은 진리요, 얼의 힘은 선행이요, 얼의 열은 용감이요, 얼의 길은 충의였다.

‘조상 나라 빛내려고 충의 남녀 일어나서 무실역행 깃발 밑에 늪름하게 모여드네. 맘을 매고 힘을 모아 죽더라도 변치 않고 한 목적을 달하고자 손을 들어 맹약하네. 우리 인격 건전하고 우리 단체 신성하여 큰 능력을 발하려고 동맹 수련함으로써, 부모국아 걱정마라. 무실역행 정신으로 굳게 뭉친 흥사단이 네 영광을 빛내리라.’

내가 도산을 본 것은 1936년 가을 어느 일요일 오후 남산현 교회에서 가진 강연회에서였다. 그때 제목은 ‘나가자’라는 것이었는데 일경들의 삼엄한 경계 밑에서 몇 번씩 주의를 받아가면서 토해내는 그의 피나는 연설이었다. 누구나 그것이 마지막임을 다 알고 있었고 도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도산은 끝까지 대한의 독립을 믿었다. 그것은 도산 자신이 독립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먹고,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잔다.”

그때 그는 평양 근교 대보산 송태에 살고 있었다.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송태를 찾아갔다. 송태 입구에 버스가 닿고 사람들이 내려서 송태를 향하는 모습이 보이면 주재소원은 그들을 붙들고 무슨 일로 안창

호를 찾느냐고 질문하였다. 평양에서 신사참배 문제로 말썽이 되었을 때 당시 평남지사는 한경부를 송태로 보내어 도산에게 평남을 떠나기를 권고하였다. 그 이유는 도산이 송태에 있기 때문에 평남의 사상이 악화되고 치안이 문란해진다는 것이었다. 도산이 당국에 물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것뿐인데 무슨 연유냐?” 정부는,

“당신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교회와 학교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를 의논하다가도 도산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서는 반대의 태도를 취하오. 당신이 음모나 선동을 하지 아니한 줄 믿지마는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선동이 되는 것이오. 지사의 말이 그러니까 당신이 평남을 떠나주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미국으로 가기를 바라오. 당신만 미국으로 갈 의향이 있다면 여행권은 곧 지사가 주선했드린다고요.”

“지사께 이렇게 전하시오. 만일 안창호의 존재가 민심을 악화시킨다면 평남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마찬가지로. 아마 감옥에 잡아 넣거나 죽이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도산은 이제 송태에서도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국내에도 국외에도 독립의 근거지를 둘 수 없게 되었다. 오직 남은 곳은 한 곳, 그것은 하늘뿐이었다. 도산은 미국으로 가게 해주겠다는 일인의 호의를 거절하고 다시 감옥으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감옥만이 하늘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는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옥고를 치렀다. 그래도 그는 조선 독립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 일본의 검사가 “조선의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그는 “대한독립은 반드시 된다.”고 대답하였다. 그 이유를 물을 때에 그것은 하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대한독립의 근거를 그는 하늘에 두었다.

그는 감옥에서 간경화증, 만성기관지염, 위하수 등 만신창이가 되

어 60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뜨고 말았다. 해방되기 7년 전 이른 봄이었다. (끝) 

- 이 글은 '길을 찾는 사람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현재 김흥호 선생은 매주 일요일 이화여대 교회에서 성경과 동양의 고전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길을 찾은 사람들

김흥호 저 | 도서출판 솔 | 9,800원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승을 만나야 한다. 이처럼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그들은 어떻게 길을 찾아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책. 원효대사를 비롯해 율곡 이이, 만해 한용운, 도산 안창호, 공자와 맹자, 석가, 간디 등을 담았다.